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5월 24일(금)

..(음력 4월 20일)..

Пятница

24 мая 2019г.

№ 20(116837)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3.1 운동 100주년 기념·새고려신문 70주년 기념 위령제가 지난 5월 20일(월)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거행.

(관련 기사 2면)

(이예식 기자 촬영)

##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사할린주 정부 부총재 권한 대행으로 부임

5월 20일부터 새 부총재 대행으로 부임한 세르게이 바이다코브(1965년생)가 직무를 시작했다. 모스크바주 발라시하시에서 출생한 그는 모스크바 에너지대학(전기기계 엔지니어), 모스크바 국립 법학아카데미(법률 전공)를 졸업했다.

그는 모스크바 에너지대학에서 근무했고, 모스크바시 중앙구청 구청장을 역임 한 바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모스크바시 부시장(지역간 협력, 스포츠 및 관광 담당)으로 근무했다. 바우만 모스크바국립기술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세르게이 바이다코브는 법학 준박사이며 경제학 박사다. (기혼, 자녀 둘)

## 2018년 주예산 집행에 대한 공청회 소집

5월 28일 16시 사할린주 정부 청사 내 <쿠나쉬르>강당에서 2018년 주예산 집행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참석을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들의 공청을 위해 지역 TV방송국과 인터넷에서 온라인 방송으로 중계된다.

주 예산 집행 자료는 <http://openbudget.sakhminfin.ru/Menu/Page/504>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출판된 예산 보고자료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다기능센터에 비치돼 있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 사할린, 오랜만에 아이스크림을 재생산

사할린의 중심 포로나이스크시 유제품공장(사장 박 미하일)에서 아이스크림 생산이 다시 재가동되어 신선한 아이스크림을 전 사할린 지역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 공장은 우유, 스메타나 등을 포함해 총 17개 제품을 생산했었는데 18번째 제품으로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게 되었다.

잘 알려진 포로나이스크 유제품은 현재 주내 700개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고 급식 식당들에도 공급하고 있다.

생산량은 1시간당 아이스크림 3000톤으로 자체 구역 소비자들 외에 현재 공장은 마카로브, 스미르니흐 등 근교 구역들로도 아이스크림을 공급하고 있다. 이 공장은 주정부의 지원 속에 기술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할린 4개 지역 축산농가의 유제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게 됐다. 곧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사할린 남부지역도 포로나이스크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의 새로운 제품에 대한 평가도 좋은 편이다.

3월 15일 사할린한인협회는 한국에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이 들어와 협회 측에서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법안을 배포하고, 내용을 검토 및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4월에 있는 사할린한인협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사할린 동포 특별법안 제안 발기 실무그룹이 조성되었다. 특별법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 내용과 제안을 청원서로 작성하여 그 내용을 5월 20일 청와대를 비롯 문희상 국회의장, 법안 대표발의자 전해철 의원과 김동철 의원 등 총 39 곳으로 발송했다고 주한인협회 측이 전했다.

아래에 청원서 내용을 게재한다.

### 사할린한인협회

693000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프로스펙트

미라 83-아.

대표번호/팩스: +7 (4242) 510-480

6930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 Мира, 83-А.

Тел/факс (4242) 510-480.

E-mail: roosk@mail.ru

유즈노사할린스크시 2019년 5월 17일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이기현 청와대 재외동포담당관

발신: 사할린동포

## 청원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불철주야 우리나라의 국사를 처리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발전된 고국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가슴이 뿌듯합니다.

최근 사할린한인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안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우리들의 입장과 요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할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한인 동포들은 조국이 광복을 되찾은 지 70여년이 지나도록 고국인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타국 러시아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3면에 계속)

## 단신

### 사할린 졸업생들을 위한 마지막 종소리 울려

사할린과 쿠릴에서 9학년생 5000여명과 11학년생 3000명을 위한, 학기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종소리> 행사들이 5월 23일부터 펼쳐지기 시작했다.

9학년생들은 이미 첫 졸업시험을 5월 24일에 치르고 11학년생들은 5월 27일부터 졸업시험을 치르게 된다.

### <사할린팀>인재발굴 경연대회 우수자 고체 폐기물 분리수거 문화를 개발

<사할린 팀>인재발굴 경연대회 우수자인 타치아나 사추크가 <폐기물 처리 및 관리>회사 환경보호부 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회사는 공공 고체 폐기물처리 지역 감독기관이다.

타치아나 사추크는 1990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출생,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에서 지리생태학을 전공하고 기후변화와 국내 경제 금융을 연구했으며 영국 '에른스트 앤 영(Ernst&Young)' 회사의 청정기술 및 발전부에서 상담을 담당했다.

### 경남 거창군 대표단, 사할린에 'G엘리베이터'를 소개

지난 5월 18일부터 4일간 한국 경남 거창군 구인모 군수 등 10명의 대표단이 사할린을 다녀갔다. 이들의 방문 주요 목적은 거창군 승강기 브랜드 'G엘리베이터' 수출협약을 체결하고 교류활동을 펼쳐지는 데 있었다.

한국대표단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을 방문해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과 만남을 가졌다.

거창군에 따르면 G엘리베이터 협업 대표사인 모든 엘리베이터와 사할린 스틸트레이드 회사 3자 간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시장과의 만남에서 거창군 측은 관광과 농업에 관한 협력에도 관심을 보였다.

### 사할린 학생교류단, 강원도 방문

지난 5월 14일부터 18일간 사할린 학생 10명(유즈노사할린스크 제3중학교와 제13중학교, 동양김나지아, 제2 및 제3김나지아)과 교육자 2명으로 구성된 학생교류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사할린-한국 교류는 2016년 9월 체결한 사할린주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 간 우호 교육 교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월 강원도 교육청 학생교류단이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한 이후 정기적으로 상호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사할린 학생교류단은 이번 방문에서 속초고등학교, 강원 진로교육원 등을 방문하여 한국 학생들과 함께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학생 1:1 매칭을 통한 홈스테이와 한국생활체험, 문화탐방 등을 했다고 전해졌다.

강제징용자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새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서울굿 위령제> 행사단 15명은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우글레고르스크시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성대한 굿판과 강연을 펼쳤다.

2019년은 대한민국이 자주독립 국가의 염원을 세계에 알리는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한국인이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당한 지 8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세월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한 사할린 한인들은 눈부신 활동으로 러시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민족으로 그 위상을 드높여 왔다. 이와 같은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현실을 대변해 온 러시아 유일의 한글신문 새고려신문사(사장 배 워토리아)가 창간 70주년을 맞았다. 그리하여 한민족 고유의 신앙자료를 한 곳에 모아 전시하고 있는 샤머니즘박물관(관장 양종승)과 공동 주최 및 주관하여 '서울굿, 사할린에 가다'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는 새고려신문사가 민족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사할린 강제징용자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내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양종승 샤머니즘박물관 관장에 따르면 "행사의 가장 핵심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돼 무주고혼이 된 한인들의 넋을 달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한 자리에서 만나 아픔을 어루만졌고, 한 맺힌 말을 하면서 화해의 장을 마련한 이번 위령제는 '새로 태어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서울 새남굿(국가무형문화재 제104호)로 치렀다.

위령제는 19일(일) 우글레고르스크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가 주최하는 <살아있는 전통에 문을 열며>란 기획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1부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소속 <아리랑>무용단(단장 박영자)와 가수 강팔용과 김월철 씨가 <옥짜브리>문화회관을 찾아온 사람들의 따뜻한 분위기를 돋구었다.

사실 사할린사람들에게는 무대에 올린 굿판은 좀 낯설긴 했지만 관객들이 호기심이 많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지낸 위령제는 우글레고르스크 무대와 규모가 달랐다. 더욱더 더 화려하고 더 진지하고 깊은 진심이 담겨있는 것

## <서울굿, 사할린에 가다>

### 3.1 운동 100주년 기념·새고려신문 70주년 기념 위령제 성대히 거행



으로 보였다.

떡, 과자, 사탕, 과일 등으로 푸짐하게 차려놓은 제사상, 화려하게 장식된 실내, 한국 전통 악기(피리, 해금, 대금, 장구)의 소리로 분위기가 독특했다.

대한민국 무형유산 '서울 새남굿'은 '새로 태어남'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서울지역 고유의 신앙의례이다. 1996년 5월 1일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104호로 지정돼 오늘날까지 그 옛 모습을 전승하고 있다. 사실 이 굿은 거의 이틀에 걸쳐 치른다. 사할린 관객들에게는 중요 부분만 보여주었다.

양 관장은 "의례는 전반부 안당사경 절차와 후반부 새남굿으로 행해진다. 안당사경은 죽은 자의 저승 천도와 살아있는 모든 가족의 제액 초복을 기원하게 된다. 그 절차는 1)주당물림 2)부정가망청배 3)진적 4)불사거리 5)도당거리 6)초가망거리 7)분향거리 8)조상거리 9)성산거리 10)별상거리 11)신장거리 12)대감거리 13)성주거리 14)창부거리 15)뒤틀전 순이다. 후반부 새남굿 절차는 죽은 자의 저승 천도에 집중하여 저승에 안착하기를 기원한다. 그 절차는 1)새남부정 2)가망청배 3)중디뵤산 4)사제삼성거리 5)말미 6)도령(뵤도령)돌기 7)영실 8)도령(안도령)돌기 9)뫏삼 10)상식 11)뒤틀영실 12)베가르기 13)시왕군웅거리 14)뒤틀전거리

순"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위령제는 국가 무형문화재 제104호 서울 새남굿 이수자 강민정 만신(무당)을 비롯한 이수자 김순희, 조춘희, 정윤경 만신, 전수자 김영숙, 광미숙, 강연희, 이수연 만신이 참여하였다. 굿 음악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3호 아끼씨당굿 보유자(인간문화재) 최형근 명인을 비롯한 전수자 김기준, 김용표 악사가 함께하여 전통 굿 음악을 연주하였다.

행사 기획 및 실무는 샤머니즘박물관 목진호 학예연구사가 진행하였다. 목진호 선생님은 2007-2009년 3년간 한국문화예술회관의 과경강사로 사할린에서 활동했으며 사물놀이 선생으로 동포들 속에서 잘 알려져 있다.

위령제에 앞서, 18일에는 사할린주립향토박물관이 주최한 '박물관의 밤'행사 일환으로 샤머니즘박물관 양종승 관장이 '한민족 문화와 서울굿'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하여 사할린 주민들로 하여금 한국 굿 문화의 이해를 돕는 데 한 몫하였다.



21일(화) 귀국한 한국 행사단은 사할린에서 지낸 위령제는 의미가 아주 깊었다고 입을 모으고 사할린에 다시 오고싶다고들 하기도 했다.

특히 출연자들은 "사할린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및 사할린 거주 한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고 위령제에 참석한 모든 한인과 현지인들은 뒤풀이까지 동참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욱 살려냈다."고 기뻐했다.

이번에 다녀간 무녀와 악사 등 모두가 사할린 방문 비용을 자부담 하고 작은 선물까지 마련했다. 그만큼 의미있는 행사에 참가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이었다.

(취재: 글/ 배순신, 사진/이예식)

## 이모저모

### 아니와 서민극단, <우스페흐(성공)> 전국 축제에서 2위 수상

5월 16일 -20일간 러시아에서의 극장의 해를 기념하여 코스트로마주 셸리코워 마을에서 <박물관의 밤>연례행사의 일환으로 제19회 전국 아마추어극단 축제가 진행되었다.

매해 이 행사는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와 새로운 극단들의 참가 속에 새로운 전환점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에 제 2회 <카페드라마> 사할린주 서민극단 축제에서 1위를 차지한 아니와 서민극단이 사할린을 대표하여 카테리나 안토노와의 극본 '아직 내가 여기 있는 동안' (극단 단장:알라 후차쉬케예와, 감독:알렌티나 쉐폴로와)을 전국 극단축제에서 공연했다.

여기서 아니와 서민극단은 다음과 같은 상을 수상했다. '아직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연극 작품은 제 19회 <우스페흐>전국 아마추어극단축제에서 2등상 수상, <연기상>부분에서는 알로나 포포 배우가 수상, <연극 데뷔상>에는 다나 레바키나 배우, <연극 의상상>부분에서 아니와 극단이 수상했다고 주민속창작센터가 전했다.

#### Народный театр Анивы получил диплом второй степени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фестивале "Успех"

16-20 мая в селе Щельково Костром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мках ежегодной акции "Ночь музеев" прошел XIX все-

российский фестиваль любительских театров "Успех", посвященный Году театра в России.

С каждым годом мероприятие набирает обороты, привлекая новые театр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и участников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защищал дипломант I степени II областного фестиваля народных драматических театров "Кафедрама" народный театр Анивы с постановкой по пьесе Катерины Антоновой "Пока я здесь" (руководитель Алла Хуташкеева, режиссер Валентина Теплова).

Коллектив получил следующие награды: диплом II степени XIX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любительских театров "Успех" за спектакль пока "Пока я здесь", "За актерской мастерство" — Алена Попова, "За дебют в спектакле" — Дана Ревякина, "За решение костюмов к спектаклю "Пока я здесь" — народный театр Анивы,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 사할린 건축가, <타브리다>포럼에서 장려금 280 만 루블리 따내다

<타브리다>연방 포럼의 기획장려금 경연대회에서 사할린의 건축가 에르네스크 슈유티베코브가 우승을 차지했다. 매해 이 포럼은 문화 및 예술의 활동가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으고 있다. 전례대로 조성된 행사장 속에는 사할린의 젊은이들이 있었다. 에르네스트 슈유티베코브는 홈스크시 출생, 비쉬케 건축대학에서 수학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 청년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아트 공간 창조의 아이디어는 충동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나는 전체적인 공간을 생각해냈다. 그 공간의 중심에 인간의 정신적인 특색의 발달을 위한 기념물이

있다. 나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영감을 얻고, 거기에서 어떤 내면의 응답을 받길 바란다. 언젠가부터 이런 자신의 감정이 오래 유지됐다. 이것은 설명이 안 된다."라며 "이것은 현재 가장 당면한 주제이다. 많은 갈등과 도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념물을 보고 영감을 얻도록 내가 지향하는 바를 전하고 싶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자신의 기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그는 많은 과정을 거쳤다. 처음에는 신청 지원을 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선택한 후 <타브리다> 포럼에서 또 한 번 선정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전문가들 앞에서 전국 각 지역에서 온 7명만이 자신의 기획을 발표할 수 있었다.

"나는 모든 공간의 미화를 최대한 상징적으로 꾸미려고 했다. 입구 공간들, 조경도 그렇다. 터널이 있다. 그 터널로 사람이 오르고, 중심 기념물로 나가게 된다. 터널 안에는 전시회도 열 수 있다. 갑작스런 지형을 따라 나무판자로 파도가 밀려오는데 이것은 태양계를 의미한다. 이 건축물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뭔지, 왜 이러한지를 알아 맞출 수 있길 바란다."며 에르네스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피력했다. 결국 에르네스트는 자신의 예술적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한 장려금 280만 루블리를 따냈다. 지금은 사할린으로 돌아와 앞으로 그에게는 새로운 건축 대상을 위한 장소 결정에 따른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 그는 아트 공간을 주 중앙도시에 건축할 마음이있다고 사할린주 청년사업청이 전했다.

(8면에 계속)

### 청원서

우리들의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조선인, 즉 한국인이었는데, 그 후손들은 평생을 소원인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도 고국의 부모형제들과 이산가족이 되어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최근 20여년간 일본의 지원에 기초해 4천여명의 고령의 사할린한인들이 그나마 영주귀국을 할 수는 있었지만 사할린동포 1세만을 영주귀국 대상으로 한다는 정책에 의해 이미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1세대도 형제, 그리고 자녀와 손자들을 사할린에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어 또다시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조국의 불운한 역사에 의하여 희생된 우리들은 해방을 맞은 지 70여년이 지나도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갈려면 형제와 자식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니 우리들은 이 무슨 기구한 운명입니까?

일본의 침략지배에서 해방되고 냉전도 끝난 지 이미 오래된 지금,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이 자발적이고 자주적으로 러시아 정부와 협상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그 후손들도 고국인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대한민국국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현재 사할린에 남아있는 모든 한인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국으로부터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희소식을 기대하면서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 제안된 김동철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하여 사할린동포들의 건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2개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분석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는 사할린동포와 관련하여 2개의 특별법안(2017년 2월 27일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특별법안과 2019년 2월 27일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특별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법안들에 대하여 현재 사할린에 남아있는 사할린동포가 요청하는 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로는 사할린동포 2세 이하 후손들의 대한민국 영주귀국 허용,

#### 둘째로는 사할린동포 후손들의 대한민국 국적 회복

2. 이 특별법안의 "사할린동포"의 정의에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먼저 "사할린동포"의 범위에 대한 문제, 즉 "사할린동포 1세"란 누구를 의미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시대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왔다가 종전과 함께 사할린에 남게 된 사람들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1)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사할린에 남아서 살고 있는 한인들
- 2) 사할린에 살다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영주귀국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 3) 사할린에 살다가 그 사이 70년 기간에 러시아 극동,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및 기타 지역과 구소련 공화국들에 이주해 살고 있는 한인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이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러시아에 남아있는 사할린 동포들을 위하여 만든 법률안이라면, 사할린 동포1세의 정의에는 위 3부류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를 전제로 특별법안 제1조 제1항의 "사할린 동포란 일제에 의하여 1945년 9월 2일까지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어 이주하였거나 사할린에서 출생한 한인(韓人)을 말한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2세 이하의 후손들과의 또한번의 가족 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할린동포란 일제에 의하여 1945년 9월 2일까지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어 이주하였거나 사할린에서 출생한 한인(韓人)과 그 후손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지금 우리들이 받아서 검토한 이 특별법안에는 현재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한인 후손들의 대한민국 국적회복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분석해보고 요청하는 제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제2조 제1호 및 제5조, 그리고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및 제100조에 근거하여,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한인들 중 그 부모님들이 일제시대 조선에서 사할린으로 일제에 의하여 강제이주되어 1945년 9월 2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한 한인과 그 후손들은 대한민국 국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김동철 의원안에 의하면 제7조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사할린 동포 대표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할린 동포 대표 1인은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할린 동포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오직 이미 한국에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1세대 뿐이며, 그들의 자손들과 아직 사할린에 남아 있는 1세대들과 그 자손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들 다수는 사할린을 떠나 한국에 산 지 벌써 25년을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분들은 사고방식이나 현안에 대한 시각이 이제는 우리들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할린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와 관련하여 영주귀국자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현실에서 이분들의 시각이나 요구사항들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사할린 동포 대표 1인"이란 현재 사할린에서 남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현실과 관련하여 현재 사할린에 남아 있는 사할린 동포 1세대와 그 후손에게도 그들의 신청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5. 제22조(진상조사) 제1항에서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 개시결정일 이후 4년 이내에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일 그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6. 또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란 법률안의 제목도 우리들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소원은 한낱 일반적인 지원이 아니라 70년 기간에 잊혀지고 버려진 우리들을 대한민국으로 귀국시켜 달라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안의 제목을 "사할린 동포 및 그 후손들의 영주귀국과 대한민국 국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7. 끝으로 특별법안에 다음 사항도 반영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한국정부는 사할린 잔류동포에 대한 한국의 언어, 문화,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통하여 특히 사할린 현지 한국어 매스컴, 즉 <새고려신문>, <우리말 방송> 그리고 한국어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사할린한인 역사박물관>의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사할린 동포는 사할린에 강제동원된 후 평생을 타국 땅 러시아에 살거나 사할린에 태어나 살게 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위와 같은 제안을 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이루어진 사할린 한인들의 그동안의 역사는 70여년 기간에 동거동락하며 이루어낸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일부이며, 특히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한글과 한국어라는 언어적 전통과 문화, 그리고 역사를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널리 전하여 이를 보존계승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서입니다.

이러한 우리 사할린 동포들의 제안을 수용하여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그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사할린동포를 대표하여  
사할린한인협회 회장 박순옥  
사할린한인이산가족협회 회장 박경춘  
사할린한인노인회 회장 김홍지

###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 독일빵은 맛나다 / 김전한

편지가 왔다  
그대의 일상이 건너왔다  
뒤셀도르프의 원칙을 전해 주었다

독일빵을 얘기해주었다  
라인강의 배란다에서 독일빵을 이등분하고 있다 하였다  
독일빵은 갈색이다  
독일빵은 크고 거칠다고 하였다  
준비 안된 그대는 허 천장이 다칠만큼  
독일빵은 완전하다고 하였다

독일빵이라고 중얼거려보았다  
뒤셀도르프를 구글려보았다

고약한 독일빵  
그러나 나는 그 고약함마저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대 머무는 동안  
나도 독일식 체제로 사물을 보기로 했다

당신의 작은 흔적도  
내게는 중요한 일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견고한 갈색의 문장으로 답장을 보냈다  
독일빵은 맛나다

"익숙함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뭐든지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놓치기 쉽잖아요. 따지고 보면 여행 역시 어느 낯선 도시의 일상을 배회하는 걸 텐데요. 거기 그 도시에서 사는 시민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는, 그러니까 너의 0.01%만 가동시킨 뒤, 빵을 고르고 썰고 식사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낯선 도시로 떠났다고 상상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연인에게는 일상으로 진화하는 의식주의 문화가 고향의 누군가에게는 점점 더 낯설기만 한 그리움으로 증폭되고야 말 테니까요. 한편 '독일' 이러면 다들 축구, 맥주, 쏘시지 등을 떠올리잖아요. 제게 독일은 뭐니뭐니해도 '온천' 입니다. '바덴바덴'이라는 작은 마을을 여행한 적이 있는데요. 체호브의 마지막 여행지이자 결국 운명을 달리했던 바로 그 도시. 이 마을이 저랑은 아주아주 잘 맞더라고요. 온천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거기가. 다양한 혼탕 문화가 특히 더. 꼭 남녀 혼탕이라서가 아니라, 빵도 고소하고요. 빵도 고소하고, 물도 고소하고..... 뭐 어쨌든, 흠흠."



서울에서 허진원.  
2019.04.24.

### 제18차 세계한상대회장에 K&K트레이딩 고상구 회장 선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주최하는 제18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에 고상구 K&K트레이딩(베트남 하노이) 회장이 선출됐다.

고상구 회장은 2006년 베트남 하노이에 한국식품유통업체인 K-마켓을 설립했으며, 현재 다낭, 호치민 등 베트남 전역으로 매장을 넓혀 약 70여 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한상 기업 최초로 베트남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며 동남아 지역의 대표 한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장, 베트남한인회 총연합회장 등을 역임한 고 회장은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작년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2017년 세계한상대회 리딩 CEO로 선출되었으며, 한상 네트워크 구축과 한상의 힘을 결집하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고 회장이 한국 농식품의 동남아 시장 진출에 기여해온 만큼 올해 한상대회 개최지이자 농수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는 전남과의 긴밀한 협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상구 회장은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상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번 한상대회가 한상과 국내 중소기업 간 실질적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18차 공동대회장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올해 제18차 세계한상대회는 10월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전라남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Владислав Ларин, представляющий Карелию и Сахалин, завоевал золото чемпионата мира по тхэквондо

В английском городе Манчестер завершился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тхэквондо.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150 стран.

Как и прогнозиров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общекомандный зачет выиграла сборна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Тхэквондисты из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завоевали четыре золотые, одну серебряную и две бронзовые медали.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три золотые и одна бронзовая награда), на третьем — Китай (две золотые, две серебряные, три бронзовые).

Сборная России замкнула ТОП-5 сильнейших. У наших спортсменов одна золотая медаль, две серебряные и одна бронзовая.

Единственное золото российской сборной принес Владислав Ларин (Республика Карелия/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бедивший в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до 87 кг. В финале он нанес поражение бразильцу Икаро Мигелю Суаресу.

Владислав Ларин имеет хорошие шансы выступить на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в Токио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н возглавляет олимпийский и мировой рейтинг в своей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А шесть сильнейших спортсменов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йтинга в каждом весе получают право выступить в Токио, минуя отборочные состязания,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 Вспоминая прошлое

### Корейский передвижной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14, 15, 16, 17, 18)

Не трудно понять, насколько ответственными были эти гастроли для артистов с далекого острова, какой волнующей становилась каждая встреча со зрителями. Но эти гастроли были еще и очень полезными. Сахалинские артисты показали свое мастерство, услышали мн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ритиков, обменялись творческим опытом с коллегами. В поселке Уш-Тобе, где пребывал в тот период Казахский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была сделана фотография на память о поездке, на которой запечатлены арт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й гастролирующей труппы и их местные товарищи по искусству. В репертуар гастролей вошли лучшие спектакли сезона 1957/58 года: «Волки» Ю Ти Хо, Со Шан Иль, «Завтра будет нашим» К.Мюфке (перевод Че Тиль Чуна), «Лавка дворянина» Де Ен Чума – и музыкальн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Сохранилась программа гастролей с иллюстрациями и аннотациями к спектаклям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 страницах программы запечатлены лица всех актеров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и солистов эстрадного ансамбля. Среди них лауреат Фестиваля молодежи и студентов 1957 года Москва, исполнительница лирических и жанровых песен (меццо-сопрано) Пак Чун Хва, исполнители корейских народных и шуточных песен Ше Бон Ги, Ким Ен Хи (сопрано), единственный исполнитель мексиканских песен Ким Ен Чер (тенор), исполнительницы корейских песен и танцев Сон Ден Ним и Ким Чун Су.

С каждым годом Сахалинский корейски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театр все больше завоевывал сердца зрителей. Успешные гастроли по Средней Азии, города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морью, Хабаровскому краю вдохновляли артистов, давали коллективу уверенность в собственных силах и новые импульсы в работе. Зрели новые творческие планы режиссеров и актеров театра, но им не суждено было сбыться. Театр внезапно закрыли.

В решен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исполкома, принятому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23 июня 1959 года, указывалось, что «выезд за пределы области ч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отразился на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передвижного театра, которы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е выполняет полностью функции, возложенные на него при образовании. Корейски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театр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превращен фактически в эстрадно-концертную группу, обслуживающую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русское население, а имеющаяся при этом театре драматическая группа в составе 13 человек, в связи с сокращением количества сценических площадок и зрителей, работает с убытками. Кроме того, драматическая группа не всегда име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бирать пьесы, отвечающие задачам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Всего же коллектив театра в 1958 году насчитывал 54 человека, а ежегодная финансовая дотация – около 800 тыс.рублей, исходя из этого и ссылаясь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порядочности сети драматических театров области, сокращ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отации, дальнейшего улучшения работы филармонии», облисполком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с 1 июля 1959 года корейского передвижного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в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и танца, передав его в ведение областной филармонии.

Однако нам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что официа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тех лет не раскрывают подлинных причин закрытия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пустя четыре десятилетия мотивы этого решения просматриваются достаточно явно.

Дело в том, что с середины 50-х годов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оводилась кампания по возвращению на родин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Ча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выехала в КНДР, но многие решили остаться. Ведь, как известно, после войны 1950-1953 годов Корея оказалась разделенной на две части. И далеко не все корейцы, прежде всего выходцы из южных провинций, хотели оказаться в КНДР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где установился жесткий тоталитарный режим Ким Ир Сена. Возвратиться же на родину,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эти люди также не могли, поскольку СССР не поддерживал никаких отношений с этой страной. В результате этих событий числен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хотя и сократилась, но не столь значительно. К началу 1957 года в области их проживало чуть более 30 тыс.человек, что несколько даже больше, чем в 1946 году.

Убыточность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тоже нельзя считать убедительным поводом для его закрытия, поскольку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отации находилось большинство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И дело было, конечно же, не в финансовых проблемах.

Под внешней завесой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сти и стремления содей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у партийно-совет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области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а затем все чаще, стали проявляться симптомы подозрительности, граничившие с враждебностью в отнош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театра. Не миновала театр и коса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Так, например, летом 1948 года был арестован актер Цой Че Нан, обвиненный в «антисоветской пропаганде» (ст. 58-10 УК РСФСР). Такие меры, как известно, были лучшим средством для «воспитания» остальных членов коллектива.

Власти пристально наблюдали за процессами, происходившими внутр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и, как видно, далеко не все их устраивало. Не последнюю роль играло и то, что под влиянием внутривластных 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их факторов в 50-е – начале 60-х годов сред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а стали образовываться различные «братства», «землячества», объединявшие исключительно лиц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Само по себе это явление было вполне нормальным и объяснимым, но в те годы оно вызывало у руководящих советских и партийных органов лишь недоверие и подозрительность, т.к. считалось, что эти группировки «культивировали национальную обособленность, ... оказывали отрицате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остальную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Тенденция к самоизоляции ч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еньшинства, особенно молодежи, могла, по мнению советских властей, привести к усложнению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области.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И.Цупенкова(Костанова)

(Из книги «Долгая дорога к большой сцене», 2001)

##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Юбилеи,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на работу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ПК на уровне пользователя, корейский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Тел. 43-59-80, 43-67-85.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72-94.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В Кванчжу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по случаю 39-й годовщины «Движения за демократию 18 мая»

Церемония по случаю 39-й годовщины «Движения за демократию 18 мая» 1980 года состоялась в городе Кванчжу. Как сообщили в управлении по делам патриотов и ветеранов РК, она прошла в субботу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жертв событий в Кванчжу. Церемония началась в 10 часов утра и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5 тыс.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ов, члены семей погибших, жители города. Участники церемонии отдали почести жертвам тех событий,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обозначив значимость «Движения за демократию 18 мая».

## WFP: Объёмы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КНДР сократились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Пхеньян получил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большой объём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в рамках Всемирн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WFP). 21 мая радио Свободная Азия со ссылкой на доклад организации от 30 апреля сообщило, что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Северу было выделено лишь 982 тонны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преле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ъём помощи сократился на 22%. Ране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семирн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сообщили о нехватке финансовых средств и приостановлен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печенья с повышенным содержанием питательных веществ для детей до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Однако, начиная с этого месяца, поставки печенья вновь возобновятся. В понедельник, 20 мая, Совбез ООН одобрил заявку ЮНИСЕФ 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и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Северу на сумму 5,7 млн долларов в виде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и чистой питьевой воды. Полученное разрешение буде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а протяжении шести месяцев до 11 октября.

## Сеул ищет останки погибших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без участия Пхеньяна

Прошлогодни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Юга и Севера по вопросам разминирования мест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а также соединения дорог на границе двух Корей идут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амеченным планом. Между тем, 1 апреля стороны должны были приступить к совместным работам по поиску останков солдат погибших в годы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Однако по причине отсутствия каких-либо действий со стороны Пхеньян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приступили к работам в отдельном порядке. Начиная с апреля, было найдено около 300 фрагментов останков солдат и более 20 тыс. вещей погибших. 15 мая было обнаружено тело младшего сержанта со знаками различия, каской и флягой. Также был найден жетон военнослужащего французской армии. Сеул пока официально не объявлял о начале поисковых работ, тем самым оставляя возможность Северу приня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Известно, что поисковые работы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ся до конца октя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 В Сеуле пройдёт форум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о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воздуха

22-23 мая в Сеуле в здании мэрии состоялся форум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о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воздуха.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35 городов шести азиатских стран, в том числе делегация из Пекина. В первый день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едставила проекты сеульской мэрии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низких выбросов углерода транспорт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электробусов, созданию городского леса. На второй день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а также госслужащих крупнейших городов РК, КНР и Японии. Они обсудили план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городами и участия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в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е. Кроме того, в этот день по запросу китайской стороны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закрытая встреч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еула и Пекина по обмену в вопросе политики. В рамках данного форума эксперты из стран Азии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обсуждают политику и ноу-хау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ы микрочастиц. Мероприятие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ится в Сеуле с 2010 года.

## В РК отметили очередной день совершеннолетия

20 мая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женщин и семьи провело очередную торжественную церемонию по случаю Дня совершеннолетия.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ста молоды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становятся 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ми в этом году. В программе церемонии официальная торжественная часть, специальная лекция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 этом году в РК 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ми становятся примерно 630 тыс. человек. В РК гражданин получает данный статус по достижении 19 лет. Тогда он получает право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поли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участвовать в выборах, вступить в брак без согласия родителей, управлять собственными финансовыми активами. Вместе с тем, мужчины становятся военнообязанными. День совершеннолетия отмечается с 1973 года каждый третий понедельник мая. (RKi)

## Сахалинцы впервые увидели выступление шаманов из Южной Кореи

Гости из Южной Кореи впервые показали сахалинцам красивый ритуал — Сеульский шаманский обряд, смысл которого — утешение душ умерших. Его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ли увидеть на сцен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ечером 20 мая.

Сам обряд — это красочное зрелище, проходящее под бой барабанов и звуки духов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Он внесен в список мирового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В Южной Ко-

рее даже есть музей шаманизма, который изучает это явление как составную часть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Привезти представление на остров решили участники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редакция областной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это единственное в России изда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оводом для этого стали две знаменательные даты — 100 лет со дня начала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его именуют Первоапрельским), когда было заявлено о стремлении Кореи стать независим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и 70 лет со дня выхода первого номера «Сэ корё синмун», рассказала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РИА «Сахалин-Курилы»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газеты Виктория Бя.

Вместе с артистами (многие являются потомственными шама-

нами и имеют статус достоя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на Сахалин приехал директор музея шаманизма, член Комиссии по культурным ценностя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господин Ян Джонг Сын.

— Сахалинская газета «Сэ корё синмун» — это наша гордость, и ее создание — большое событие и для нас, живущих в Корее, — сказал он. — Чтобы отпраздновать ее день рождения, мы и пригласили известных у нас в стране людей, чтобы провести этот обряд. Его смысл — не только утешение душ наших земляков, принудите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японцами на Сахалин и умерших вдали от родины, но и благословление их потомков, то есть живущих сейчас на острове корейцев. У нас верят, что умершие и живые встречаются в одном месте, ищут примирения, празднуют и делят вместе радость, и в этом истинный смысл Сеульского шаманского обряда.

Надо сказать, что в полной версии он длится два дня, поэтому гост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сократили его до полутора часов, показав основные этапы.

По отзывам пришедших на представление сахалинцев — как русских, так и корейцев, они открыли для себя много интересного и неизведанного в культуре соседней страны. А еще шаманский ритуал дал понять, какой болью для всего народа стала насильственная мобил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

— Мне, помимо всего прочего, было интересно послушать артистов, ведь язык, на котором ведут обряд, несколько отличается от современного, — поделилась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СахГУ Инна Че. — Шаманский ритуал был познавательным для меня и моих студентов, он позволил глубже понять сут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кануне, 19 мая, шаманы показали свое искусство в Углегорске, а также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акции «Ночь музеев», которая прош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Евгений Аверин, Елизавета Федюкова)  
РИА «Сахалин-Курилы»  
Фото: Ли Е Сик



рее даже есть музей шаманизма, который изучает это явление как составную часть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Привезти представление на остров решили участники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редакция областной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это единственное в России изда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ми и имеют статус достоя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на Сахалин приехал директор музея шаманизма, член Комиссии по культурным ценностя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господин Ян Джонг Сы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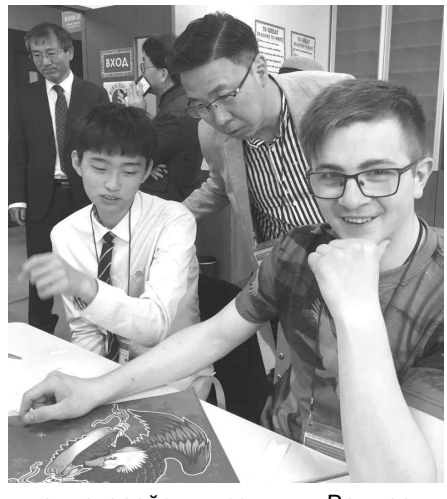
— Сахалинская газета «Сэ корё синмун» — это наша гордость, и ее создание — большое событие и для нас, живущих в Корее, — сказал он. — Чтобы отпраздновать ее день рождения, мы и пригласили известных у нас в стране людей, чтобы провести этот обряд. Его

## Сахалинские школьники посетили Страну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Группа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посетила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ю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ездка состоялась с 14 по 18 мая. Визит островных школьников в Страну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стал возможен благодаря подписанному в 2016 году протоколу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

сообщает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 Программа визита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ю была очень насыщена. Юные островитяне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культурой, бытом и традициям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поучаствовали в совме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с корейскими сверстниками. Они жили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емьях. Во время небольшого визита ребята успели посетить старшую школу Сокчхо, побывать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парке Сораксан и храме Наксана. В Сеуле школьники посетили башню Lotte Word Tower и COEX Aquarium и культур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В дальнейшем визиты по обмену будут продолжены, — рассказала ведущий консультант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лена Ершова.

В состав делегации вошли 10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из школ №3 и 13, Восточной гимназии и гимназий №2, 3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о обмену этой зимой семьи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гостеприимно принимали у себя ребят из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небольшого визита ребята успели посетить старшую школу Сокчхо, побывать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парке Сораксан и храме Наксана. В Сеуле школьники посетили башню Lotte Word Tower и COEX Aquarium и культур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В дальнейшем визиты по обмену будут продолжены, — рассказала ведущий консультант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лена Ершова.

##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назначен исполняющим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 работе в должности нов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в сахалинск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риступил 20 мая.

Сергей Львович Байдаков родился 11 февраля 1965 года в городе Балашиха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Окончил два вуза – в 1988 году – Московский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инженер-электромеханик), в 1995-ом – Московску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юридическую академию (юрист).

С 1986 по 1991 годы –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офкома студентов Московского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млад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офкома студентов Московского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В 1991 году Сергей Львович стал заместителем ректора Московского энергет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а впоследствии – директором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С 1993 по 2000 годы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и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супрефекта,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главы, главы Управы района «Лефортово» Юго-Восточног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круга Москвы.

В периоды с 2003 по 2008 годы и с 2010 по 2012 – префект Центральног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круга Москвы.

С 2008 по 2010 годы – заместитель мэра Москвы по вопросам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В 2012-2017 годах в качестве профессора преподавал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менеджмент» для слушателей МВА.

С 2017 по 2018 годы работал руководителем проектов п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менеджменту в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ях.

С января по май 2019-го являлся профессором кафедры экономики и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факультета «Инженерный бизнес и менеджмент»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техн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ени Н.Э.Баумана.

Кандидат юридических наук и доктор экономических наук. Женат, двое детей.

Коллеги Сергея Байдакова по работе в столице отметили его высок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качества.

– На всех должностях Сергей Львович проявил себя самым достойным образом. Считаю, что его управленческий опыт, приобретенный в столице, принесет польз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ее жителям, – 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Ресин, депутат Госдумы РФ, в прошлом –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мэра Москвы.

– Хочу отметить незаурядные организатор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Сергея Львовича, которые ярко проявились при назначении на руководящие должности,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московск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Валентин Горбунов. – Например, когда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стал префектом Цент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Москвы, впервые были введены удобные для жителей услуги по типу «единого окна», которые потом масштабировались по всей столице и в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ах.

## Победительница конкурса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 культуру раздельного сбора ТКО на островах

Татьяна Сачук назначена на должность начальника отдела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АО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Эта компания является региональным оператором по обращению с твердыми коммунальными отходами.

Татьяна Николаевна – урожен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одилась в 1990 году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лучил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Геоэколог», затем за рубежом изучала экономику и финансы, а также изменение климата.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она начала в геодезической компании в должности эколога и впоследствии стала помощником руководителя. Кроме того, Татьяна Сачук работала в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где являлась исполнителем проекта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Также была консультантом отдела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и чист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британской аудиторско-консалтинговой компании Ernst&Young – одной из самых крупных в мире.

Татьяна Сачук стала одной из 55 победителей кадрового проекта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й иницииров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Конкурс стал прекрасн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не только проявить себя, но 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молодыми управленцами, профессионалами своего дела. Все задания были непростыми. Это здорово проверило наш коллективный дух и способность работать в команде, – рассказала победительница. – Когда шла на конкурс, хотела найти применение своим знаниям и опыту в деле обращения с отходами. И я получила именно ту работу, где у меня есть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этого. Задача номер один, которую я ставлю перед собой в новой должности, – наладить раздельный сбор мусо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в дальнейшем –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 На конкурсе у нас с Татьяной Сачук состоялось первое собеседование. Это активный молодой специалист с большим багажом знаний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пытом работы,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Зайцев. – Уверен, что она наилучшим образом проявит себя на новом месте работы. Сейчас область переходит на новую сис-

тему обращения с отходами, и вопросы эк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обретают особую актуальнос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овые должности после конкурса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получили 6 молодых управленцев.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оизойдет еще несколько назначений. Это будущие заместители министров, руководители агентств, специалисты министерств и ведомств.

Кроме возможности занять руководящие должности в органах власти, финалисты конкурса получили гранты: десятка лидеров выиграла по 1 миллиону рублей н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Еще двое участников с помощью грантов смогут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социальные проекты.

Напомним, конкурс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ходил с 18 февраля по 22 апреля. Заявки в кадровый проект подали более 1300 человек, большинство –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55 молодых управленцев. Сегодня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едется подготовка ко второму конкурсу,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осенью этого года.

## На линию «1-300» уже поступило около 3,5 тысяч обращений сахалинце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бирает обороты прямая ли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 1 мая она начала работать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Новая система получения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от жителей запуще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За это время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лучили 3,5 тысячи сахалинцев. В течение апреля горячая линия работала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в основно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зже к системе подключились все медучреждения области.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интересуют вопросы из разных сфер медицины – лекарстве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сроков оказания медпомощи, доступности различных процедур.

– Работа линии «1-300» нужна не тольк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тработать сигнал конкретного человека, но и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где есть системные недоработки. По кажд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реш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с доступностью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 будем увеличивать количество талонов, внедрять новые формы записи, по лекарственному обеспечению – все медикаменты, которые положены человеку программой госгарантий, он должен получить. И так везде – пациент не должен страдать от неумения организовать лечебный процесс, – высказался о работе сервиса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гиона Владимир Ющук.

Большинство вопросов от сахалинцев касаются записи на прием к врачу.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ы уже взято на особый контроль – в регионе разработан стандарт обслуживания пациентов. Норматив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ремя ожидания приема врача (от указанного в талоне) – не более 30 минут. Внедрение стандарта началось с поликлиник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и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Ранее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задачу привлечь к работе в больницах и поликлиника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сократить очереди более чем в 2 раза, оснастить медучреждения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Уже сейчас вдвое выросли расходы на капремонт и закуп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1,2 и 2,3 миллиарда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роект «Бережливая поликлиника» реализуется в 5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б удвоении «подъемных»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ибывающих по кадровой программе; выросли квоты на обучение сахалинцев в медузах.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1 июня вводятся льготы на вывоз мусора

Услуга станет дешевле в 2-4 раза для ряда льготных категорий граждан. Их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 около 80 тысяч человек.

Размер платы за вывоз мусора сегодня определяется по единому тарифу из расчета 4 рубля за один квадратный метр общей жилплощади. Для льготников стоимость значительно уменьшена. Сниженную сумму оплаты за вывоз твердых коммунальных отходов в своих платежных документах они увидят с первого июня. Перерасчет тарифа будет произведен с января 2019 года, то есть с первого месяца выставления квитанций.

–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ввести льготы для наименее социально защищенных категорий жителей. Для ветерано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инвалидо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реабилитированных лиц и граждан, признанных пострадавшими от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а также «детей войны» плата снижена до 1 рубля за квадратный метр жилья, – рассказал на брифинге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Зайцев.

Малоимущие граждане будут платить 2 рубля за квадратный метр. Льготой также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инвалиды, семьи с детьми-инвалидами, многодетные и студенческие семьи, молодые семьи, имеющие двух и более детей, со среднедушевым доходом, размер которого не превышает величины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Низкая стоимость тарифа льготникам будет компенсирована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Еще одна важная задача, над которой сегодня работают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 добиться в течение двух месяцев того, чтобы более 95 процентов предприятий заключили договор на вывоз ТКО. Это позволит исключ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сброс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мусора.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глав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первыми этот вопрос подняли жители Хомутово. Они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не раз замечали, как контейнеры, расположенные для сбора твердых бытовых отходов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используют сторонние компании. Также существуют проблемы и с регулярным вывозом мусора.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смене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ая будет вывозить мусор более качественно.

Информация о недобросовестных компаниях передана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ую комиссию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помн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ешла на новую систему обращения с твердыми коммунальными отходами с 1 января этого года. Она призвана упорядочить процессы утилизации мусора. В области будет внедрена система раздельного накопления отходов, вторсырье направят на переработку, а старые свалки ликвидируют.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направят значительные средства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полигонов и мусоросортировочных станций, мусорных площадок и рекультивацию действующих свалок. В ближайшие 6 лет на эти цели выделят более 1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Уж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чнет действовать новый полигон утилизации ТКО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в районе карьера «Известковый».

##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Москвой начали летать одни из самых вместительных в стране пассажирских лайнеров

Авиакомпания «Россия» запустила на Сахалин два больших самолета и увеличила частоту полетов. С переходом на летнее расписание комфортабельные самолеты делают два рейса ежедневно.

Первый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рейс, который выполнило воздушное судно повышенной вместимости на 457 пассажиров, сегодня встретили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еперь лайнеры двух типов марки Boeing будут совершать из Москвы на Сахалин и обратно 14 рейсов в неделю. Самый вместительный из них начнет летать трижды в неделю.

– Сегодня у нас знаковое событие. Благодаря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главы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авиакомпании «Россия», на весь летний период межд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и Москвой увеличена частота полетов дальнемагистральных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 сообщ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дуард Ри. – Ежемесячно будет доступно около 2,5 тысяч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ст. Это на 12 процентов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Как отметил офи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виакомпании «Россия» Сергей Стариков, на маршрут поставлены воздушные суда, которые имеют увеличенную вместимост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ругими самолетами в парке отечественных компаний. При этом расстояния между пассажирскими креслами на борту на 5 сантиметров больше, чем у стандартных воздушных судов.

– Лайнер, который открывает вторую частоту, вмещает в себя в среднем на сто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в аналогичных самолетах, выполняющих рейсы на Сахалин и обратно,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Стариков. – Перевозить пассажиров также будет еще одно судно вместимостью до 373 пассажиров.

Открытие второй линии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стровитянам и жителям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России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чаще и с комфортом. Каждое место в самолете оснащено встроенным мультимедийным монитором. У пассажиров всех классов обслуживания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смотреть в полете фильмы, слушать музыку и аудиокниг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доступна стриминговая система, посредством которой пассажиры с личных гаджетов могут просматривать развлекательный контент.

Маленьким пассажирам авиакомпания дарит детские наборы с дополненной реальностью, которые были отмечены премией Highly Recommended авторитетного британского издания Travel Plus.

В полете предлагается разнообразное меню. Вместо трех видов питания теперь четырнадцать, в том числе детское, диетическое и вегетарианское. Впоследствии появится и пятнадцатая разновидность – кошерное меню.

Первые пассажиры Boeing 777-300 ER оценили сервис авиакомпании.

– Полет прекрасный. Обслуживание на высоте! Вежливые стюардессы, вкусная еда и напитки. В общем, все хорошо, – отметила Тамара Коржакова, жительница Анивы, прибывшая из столицы.

– Я впервые воспользовался услугами эт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и очень доволен, – рассказал Евгений Овчинников, пассажир из Туапсе, прилетевший на Сахалин в командировку. – Полет прошел легко. В салоне достаточно просторно, сиденья комфортные.

Расписание рейсов авиакомпании «Россия» следующее. Первый самолет каждый день вылетает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11:50 и приземляется в Шереметьево в 12:25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рейс выполняется в 17:05 и с приземление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9:15. Второй самолет будет вылетать в 15:10 и в 15:45 прибудет в Москву. Из Шереметьево воздушное судно отправится в 20:20 и в 12:35 приземлится на Сахалин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우리 시대의 '암호' 광주에 대한 참회록



▲ 5.18 광주민중항쟁의 상징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비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오월은 바람처럼 그렇게  
 오월은 풀잎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오지는 않았다  
 오월은 왔다 비수를 품은 밤으로  
 야수의 무자비한 발톱과 함께  
 바퀴와 개머리판에 메이드인 유 에스 에이를 새긴  
 전차와 함께 기관총과 함께 왔다  
 오월은 왔다 헐떡거리면서  
 피에 주린 미친 개의 이빨과 함께  
 두부처럼 처녀의 유방을 자르며  
 대검의 병사와 함께 오월은 왔다  
 별집처럼 도시의 가슴을 뚫고  
 살해된 누이의 울음을 찾아 우는  
 아이의 검은 눈동자를 뚫고  
 총알처럼 왔다 압제의 거리에서  
 팔이며 다리가 피묻은 살점으로 뒹구는  
 능지처참의 학살로 오월은 오월은 왔다 그렇게!  
 (이하 생략)

참여시인 김남주는 1980 광주민중항쟁의 실상을 한 치의 절제도 허용하지 않은 시어(詩語)로 토해냈다. 그가 당장 체험한 5월은 푸른 색깔이 아닌 검붉은 핏빛으로 적셔져 얼룩진 도화지같은 계절이었다. 어버이와 어린이라는 단어가 넘실댔어야 할 1980년 대한민국의 5월은 열흘동안 단절된 도시에 갖혀서 몰매를 맞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너무도 고통스런 계절이었다.

미리 고백하건데, '보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투성이에 끼인 나는 그 봄을 너무 황홀하게 보내고 있었다.

#### 그 푸르름의 5월, 연희동 거리에서

그랬다. 제대하지 6개월이 막 지난 어느날 벌어진 군사 쿠데타로 더럽혀진 서울 하늘은 그 봄 내내 시민들의 마음 한편에 젓빛 그늘을 드리우기는 했으나, 계절만은 그 푸르름의 빛깔을 더욱 짙게 뿜어내고 있었다. 교문밖에서 흘러 들어온 최루탄 냄새를 잊어버리게 할 만큼 5월은 여전히 푸르렀고, 강촌 출신인 나는 그 푸르름에 흠뻑 취해 조는듯 꿈꾸는듯 서울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어차피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그들은 그들대로 아웅다웅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고, 나는 나의 할 일이 있을 터이니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교회 청년부 모임을 끝내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다. 신촌의 '데모대학' 운동권 멤버중 2인자이며 같은 교회 청년부원이기도 했던 동년배 친구를 길거리에서 마주쳤다. 다소 상기된 표정의 그가 잔걸음으로 다가서더니 다짜고짜 "큰일났다"는 것이었다. 경찰의 수배를 피해 다니던 그는 "광주에서 끔찍한 대살육이 벌어져 2만 명도 넘게 죽었다"며 결사대를 조직해 광주로 가려 한다는 것이다.

기가 막혔다. 아무렴 대명천지에 2만 명이 죽었다

는 건 뭐고 결사대는 또 뭐란 말인가. 당시 최고의 운동권 서적이었던 <우상과 이성> <전환시대의 논리> 등을 교회 여자 청년들에게까지 나눠주며 선동을 일삼던 그였다. 나는 그의 '괴담'을 무시해 버리고는 불쾌한 감정을 안고 바삐 버스정류장으로 향했다.

나는 당시 뜻이 맞는 몇몇 후배들과 막 관심을 끌기 시작했던 '평신도 각성' 독서 모임을 열었고, 한편으로는 한반도 서남부 광주 해남 일대의 교회들을 대상으로한 '전도여행'을 하며 '평신도 연대'를 모색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5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광주 일원에서 '연희동 아저씨들'에 의해 벌어진 '빨갱이 토벌 작전'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아예 들어갈 수 없으니 전도 대상에 접근할 수도 없었고, 육체가 무참히 살육을 당했으니 구원받아야 할 영혼도 없어



▲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그린 <화려한 휴가>의 한 장면. 이 장면은 1987년 필자가 광주 어른 으로부터 들었던 내용과 흡사하다.

져 버린 현실 앞에 할 말을 잊고 말았다. 한동안 우리는 극심한 아노미(정신적 정상성의 급격한 상실)에 빠져들었다.

#### 미시간의 그 일요일

내가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은 고국을 떠나 푸른 꿈을 안고 유학길에 나선 후부터였다. 온통 '선진조국 건설'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차압당한 채 살아왔던 전체주의적 분위기에 그런대로 적응하며 즐겁게 살아왔던 내게, 유학은 기존의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

분명히 기억컨데, 그날은 1987년 겨울 어느날 일요일 아침이었다. 교회에 함께가자며 학교 기혼자 아파트 맞은편에 살던 '광주 부부' 집 방문을 두드리려다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문앞에 멈춰 서고 말았다. 안에서 두런 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뭔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와 훌쩍이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숨죽인채 듣다보니 누군가 기도를 하는 소리였다. 20년이 넘은 지금도 그 처절하기까지 한 기도가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천하에 저런 나쁜 놈들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아이고 흑흑 아이고, 까치 새끼같은 애를 매달아 질질 끌고가기까지 했어요. 아이고 전두환이 저런 찢어죽일 나쁜 놈을...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흑흑 격격..."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다. 울분과 탄식과 원망의 외마디였다. 심장을 쥐어 짜는 듯한 탁한 목소리의 그 기도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 도망치듯 황망히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는 잔설이 쌓여있던 아파트 뒷편의 긴 피크닉 테이블에 앉아 한참이나 몸을 식혀야 했다. 뭐랄까. 느닷없이 거대한 몸집의 누군가를 방금 마주쳤고, '이런 순 무식한 놈!' 호령과 함께 눈에 불꽃이 될 정도로 세계 따귀를 후려 맞은 느낌이였다. 이른바 누미노제 체험(거룩한 신존재에의 체험)이었다.

얼마후 우연한 자리에서 그 어른이 LA에서 방문한 가까운 친척으로 교회 장로라는 사실, 그리고 LA와 뉴욕, 캐나다 등지에 광주에서 피신해온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으나, 차마 가족 중 누가 광주에서 변을 당했는지는 묻지도 듣지도 못했다. 어찌어찌 해서 뭔가를 알았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란 말인가.

(계속)

【한국(광주)=세계한인언론인협회 공동취재단】  
김명곤 기자

### [우리말로 깨닫다]

### 세수와 깨달음

미얀마 만달레이에 가면 마하무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미얀마의 3대 보물 중 하나인 불상이 있습니다. 만달레이에 특강을 갔다가 새벽 예불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정말 많은 사람이 예불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관광객보다는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간절함은 늘 따뜻합니다. 간절함은 늘 감동을 줍니다. 가만히 마음을 가다듬고 앉아있으니 저도 경건해지고, 간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새벽 예불의 주요한 예식은 부처님의 얼굴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 함께 하였지만 저는 세수를 하는 장면의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얼굴을 씻어주는 사람의 모습에서도 감동이 있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애절하게 기도하는 미얀마 사람의 모습에서 순수한 바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바라 그렇게 안쓰러운 표정으로 연신 기도를 올렸을까요?

정말로 정성스럽게 세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경건함과 깨달음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세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옵니다. 같이 간 미얀마 선생님들의 말에 따르면 저렇게 닦은 물을 다시 나눠 주어 집으로 가져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닦은 물마저도 귀한 겁니다. 미신 같은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간절함이 가득한 모습이 기억납니다. 물을 받기 위해서 늘어선 줄이 길었습니다. 새벽 탁발승에게 공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문득 마하무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쉽게 부처님의 얼굴을 닦아주어야 공덕을 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분이니 귀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역시 깨달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스스로도 충분히 귀한 존재임을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부처님의 얼굴을 닦아줄 수도 없고, 직접 닦을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새벽 예불에 가서 부처님의 얼굴을 정성스레 닦아주듯이 우리 스스로의 얼굴도 정성껏 닦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세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매일 아침이 우리에게 공덕을 쌓는 시간이겠네요. 세숫물을 집으로 가져올 필요도 없겠네요.

부처님을 얼굴을 닦듯이 나의 얼굴을 닦으며 살아온 내 인생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얼굴은 나의 인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진 주름은 때로 내 웃음자국입니다. 기뻐서 웃어도 주름이 생기죠. 어떤 주름은 내 괴로움의 흔적입니다. 이마와 양미간(兩眉間)에 점점 깊어져 가는 주름은 때로 서글픈 느낌을 줍니다. 참 외로웠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생각하니 스스로가 가여워지기도 합니다. 기쁜 주름과 괴로운 주름은 모습이나 느낌이 다릅니다. 앞으로 기쁜 주름이 더 늘어나기 바랍니다.

누구나 자신의 얼굴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점 하나에도 사연이 있고, 상처 하나에도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모르는 내가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저렇게 생겼었구나 하고 놀랄 때도 있습니다. 내 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코는 어떤가요? 제 귀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제 귀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니 어릴 때 제 귀가 부처님 귀처럼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세히 보면 꽤 괜찮은 듯해서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눈도, 귀도, 코도 다시 바라보고 고마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네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참 나를 잘 지켜주었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 듣는 세상, 냄새 맡는 세상이 귀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도 귀도 깨끗이 씻어 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며 공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내가 귀함을, 사람이 귀함을 몸으로 깨닫습니다. 세수는 깨달음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 2,8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ыиграл сахалинский архитектор на форуме "Таврида"

Сахалинский архитектор Эрнест Суютбеков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конкурса грантовых проектов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форуме "Таврида". Ежегодно он собирает сотни деятеле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страны. По традиции участникам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и становятся и молодые островитяне.

Эрнест Суютбеков родился в Холмске, учился на архитектора в Бишкеке, а после вернулся в родной портовый город. По словам молод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идея создания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а появилась спонтанно.

— Я придумал цел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в центре которого будет монумент, посвященный развитию духовных качеств человека. Я хочу, чтобы люди вдохновились этим и у них был какой-то отклик изнутри. Я такое чувство сам когда-то пережил, это не объяснить, — делится молодой архитектор. — Это самая актуальная тема на сегодня. Происходит много конфликтов, провокаций, поэтому хочется дать людям свой посыл, чтобы они посмотрели и вдохновились этим монументом.

Прежде чем попасть на защиту своего проекта, Эрнест проделал огромный путь. Сначала подал заявку, где его идею выбрали среди сотни других, а после прошел еще один отбор, уже на форуме "Таврида".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и проекты перед экспертами смогли лишь семь человек со всей страны.

— Я хотел сделать вс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оже максимально символичным. Это и входная группа, и озеленение. Будет туннель, по которому человек будет подниматься и выходить к центральному монументу. Внутри туннеля, возможно, смогут устраивать выставки. Вокруг по рельефу идут волны из деревянного покрытия — это как Солнечная система. Хочется, чтобы все, кто будет посещать этот объект, могли сами догадываться, что это и почему это так, — продолжает Эрнест.

Эрнест выиграл 2 миллиона 800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реализацию своей творческой идеи.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ец уже

вернулся домой. Впереди его ждет долгая работ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места для нового объекта. Сам автор хочет, чтобы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о украсило областную столицу,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주 도서관, сах알린 주민들을 도서관 <개방의 날> 행사에 초대

전국 도서관의 날을 기념하여 сах알린주 일반과학도서관에서 <개방의 날>행사가 5월 27일에 펼쳐진다.

이날 방문객들은 관람, 새로운 문학작품 살펴보기, 퀴즈대회, 보드 게임, 활동교실에서는 우뇌로 그림그리기와 도예 그림그리기 활동이 진행된다.

<сах알린 시민 가이드>기획의 참가자들은 시내 거리를 견학하고 сах알린주 도서관 전문가들은 모든 희망자들을 위해 주내 도서관 역사를 소개할 예정이다.

모든 방문객들을 위한 <전쟁시기의 아이들>합창단과 <테트-아-테트>보컬 앙상블이 음악을 선사한다.

행사는 11시에 시작하고 입장은 무료다. 문의 전화: 45-25-28, 45-25-21

## Област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иглашает сахалинцев на день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Акция "День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посвященна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му дню библиотек, пройд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27 мая.

Посетителей мероприятия ждут экскурсии, обзор литературных новинок, викторины, настольные игры,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правополушарному рисованию и росписи камней.

Участники проекта "Народ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гид" проведут пешеходную экскурсию по улицам города, а специалисты СахОУНБ познакомят всех желающих с историей сахалинских библиотек.

Музыкальным подарком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станет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хора "Дети войны" и выступление вок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Тет-а-тет".

Начало акции в 11:00.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ообщает библиотека.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ам: 45-25-28, 45-25-21.

(сах알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2019년 5월 22일 향년 81세를 일기로 сах알린주이산가족협회 명예회장 서운준 씨가 투병 끝에 별세하셨습니다.

고 서운준 씨는 сах알린한인이산가족협회 초대회장으로 활동하셨고 сах알린 한인사회단체 설립을 주도하신 분들 중 한 분이시며 그분의 활동으로 сах알린 한인들의 소중한 꿈인 영주귀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고 서운준 씨의 유가족과 친지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сах알린주한인이산가족협회  
сах알린한인협회  
сах알린주노인회  
새고려신문사  
우리말 방송국

22 мая 2019 г. в возрасте 81 год в г. Ансане после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й болезни скончался почетный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а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е Юн Дюн.

Се Юн Дюн был одним из инициаторов создания перв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е.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ему воплотилась в жизнь самая сокровенная мечта тысяч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 возвращение на землю предков.

Выражаем глубокие и искренние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в связи кончиной Се Юн Дюн.

Скорбим вместе с вам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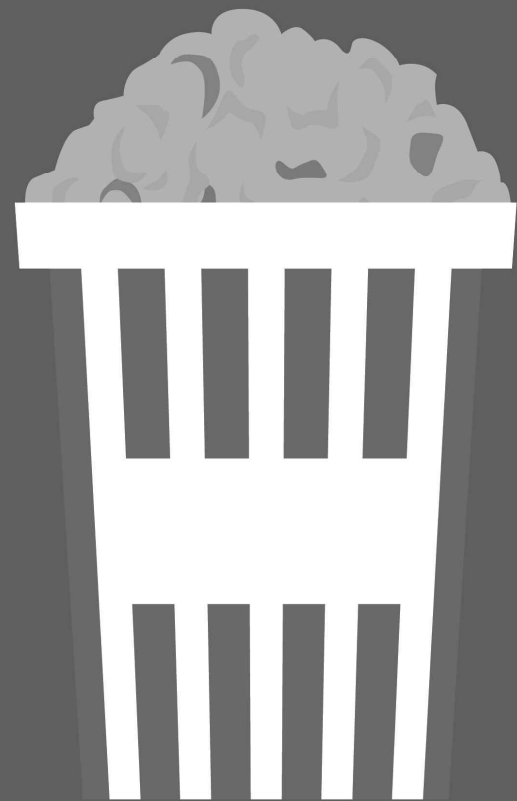
Общество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ОСК  
Совет старейшин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э синмун»  
«Ури маль бансон» КТВ

# bilet.sakh.com

# БИЛЕТЫ

## в кино

###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э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э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